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나온다, 고드윈의 법칙(Godwin's Law)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045/>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이 갈리는 글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 상대를 독재자에 빗대는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맞집이나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흐름을 한 문장으로 짚어 낸 유명한 경험칙이 있습니다. 바로 ‘고드윈의 법칙(Godwin's Law)’입니다. 고드윈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 ‘온라인 토론이 길어질수록 누군가 상대나 주장을 나치나 히틀러에 빗댄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인터넷 격언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마이크 고드윈(Mike Godwin)의 이름을 땄으며, 정식 이름은 ‘나치 비유에 관한 고드윈의 법칙(Godwin's Law of Nazi Analogies)’입니다. 본 자료에서는 고드윈의 법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그 안에 담긴 의미, 흔히 생기는 오해, 그리고 이 법칙이 온라인 대화에 주는 교훈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드윈의 법칙의 뜻과 오해를 구분하고 비교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안내. 관련성·맥락·근거의 세 질문은 편집적 재구성입니다. 출처: Mike Godwin의 1994년 설명, 2016년 취지 설명, 2015년 비교에 관한 설명. 잡학서고 제작. 길어진 논쟁의 끝을